

도심 속의 별오름, 별찬

광진청소년수련관 “시골”

“시골”, “별찬”, “별오름” 왠지 낯설지만 별과 관련된 한글 이름이 너무나도 정겨운 광진청소년수련관 “시골” 천문대. 서울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과연 별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 하지만 이곳에 오면 평소 서울 도심 속에서 느낄 수 없는 색다른 낭만과 만날 수 있다. 분명 다른 청소년수련관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는 곳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 약 4분의 1이 모여 살고 있는 서울. 2006년 6월 광진청소년수련관 “시골”이 개관하기 이전까지 서울에는 제대로 된 천문관련 시설을 갖춘 곳이 한군데도 없었다. 소규모의 공·사립천문대와 플라네타리움 시설을 갖춘 곳은 있었지만 복합적인 천문시설을 갖춘 곳은 광진청소년수련관 “시골”이 처음이다. 광진구체육센터와 각종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해주고 있다.

접근성은 매우 좋은 편이다. 천호대교 북단, 강변북로와 천호대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자가용을 이용해 방문하기 편하며, 주차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이 바로 인접하고 있어 대중교통도 좋은 편이다.

광진청소년수련관 “시골”은 다양한 천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시민천문대처럼 항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제로 가족과 단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다 같이 즐기는 가족 별자리 여행”을 총 3회 운영하고 있고, 평일과 토요일에는 30명 이상 학교, 청소년 단체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단체 별자리 여행”을 운영한다. 사전에 전화 접수를 통해서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시민천문대는 일반인이 별을 보고 싶을 때 찾아가 별을 볼 수 있지만, 광진청소년수련관 “시골”은 도심 속의 천문대이지만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운영되고 있어 일반인이 언제나 찾아가 별을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추후 천문관련 프로그램이 정착되고, 정비하여 항시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광진청소년수련관 “시골”에서 천문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맡는 직원은 총 3명. 아직 개관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다소 운영상 매끄럽지 못한 점이 눈에 보인다. 그러나 아마추어 천문 활동과 천문학을 전공한 직원들의 열의는 대단하다. 일반인들이 수동적으로 단순히 별만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의 열정과 노력



으로 광진청소년수련관 “시골”이 수도권에서 가장 앞서가는 천문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눈에 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항시 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으로써 광진청소년수련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서울시민천문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갔으면 한다. 매년 광진청소년수련관만의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일반인들을 위한 공개관측회와 별축제 행사를 통해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광진청소년수련관 “시골”은 서울시민들에게 친근한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